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초점)-경상수지 흑자 줄었지만 내용상 주목할 변화도 나타나
 - ◇ (초점)-금리인하 베팅 들어간 외국인..2월 금통위 결과 따라 뒤집을 가능성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여인이 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딸의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6.5	0.4%	-2.5%	-3.5%	유로	1.0943	-1.4%	-2.4%	-2.3%
100엔 대비	1,085.6	1.5%	-2.1%	-4.4%	엔	109.72	-1.2%	-1.0%	0.9%
유로 대비	1,303.7	1.7%	-0.8%	-1.3%	위안	6.9720	-0.9%	-0.1%	-1.3%
위안 대비	170.13	1.3%	-2.6%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9,102.51	3.0%	2.0%	22.3%
코스피	2,211.95	4.4%	0.6%	7.7%	나스닥	9,520.51	4.0%	6.1%	35.2%
코스닥	672.63	4.7%	0.4%	-0.9%	S&P500	3,327.71	3.2%	3.0%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7.17	2.8%	-1.0%	15.8%
국고채 3Y	1.280%	-2.3bp	-8.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98%	1.1bp	-8.2bp	-40.4bp	미국채 2Y	1.401%	8.2bp	-16.0bp	-93.7bp
국고채10Y	1.601%	4.3bp	-8.2bp	-26.5bp	미국채 10Y	1.582%	7.7bp	-32.8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50.32	-2.4%	-17.6%	34.5%	한국 5Y	23.6bp	-2.7bp	2.6bp	-17.0bp
금(현물)	1,569.91	-1.3%	3.5%	18.3%	일본 5Y	15.9bp	-0.3bp	-1.9bp	-4.0bp
TR상품지수	2,389.48	-0.5%	-3.9%	4.8%	중국 5Y	34.7bp	-5.4bp	4.0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10일(월)>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11:30)
- 기재부, 2019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 (11:30)
- 한은, 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11일(화)>

- 관세청, 2월 1-10일 수출입

<12일(수)>

- 통계청, 1월 고용동향(08:00)
- 한은,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3일(목)>

- 특이일정 없음

<14일(금)>

- 한은, 1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2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10일(월)>

- 일본, 1월 은행대출 (8:50)
- 일본, 12월 경상수지 (8:50)
- 중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0:30)
- 중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30)
- 유로존, 2월 섹터스지수 (18:00)
- 중국, 1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10~17일)
- 중국, 1월 위안화 신규대출 (10~17일)
- 중국, 1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0~18일)
- 미국, 1월 고용추이 (자정)

<11일(화)>

-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반기 증언(자정)
- 미국, 1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일본 휴장

<12일(수)>

-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 발표 및 2020년 통화정책 보고서 발간(17:30)
-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19:00)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연방예산 (13일 오전 4:00)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반기 증언(자정)

<1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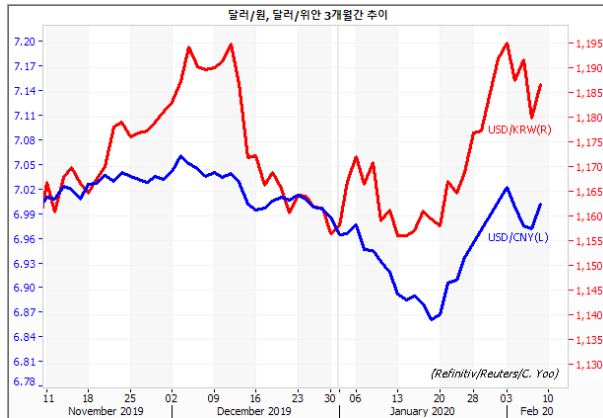
- 일본, 1월 기업상품가격지수 (8:50)
- 미국, 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22: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14일(금)>

- 유로존, 12월 무역수지 (19:00)
- 유로존, 4분기 GDP 수정치 (19:00)
- 미국, 1월 수출입물가 (22:30)
- 미국, 1월 소매판매 (22:30)
- 미국, 1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12월 기업재고 (자정)
-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자정)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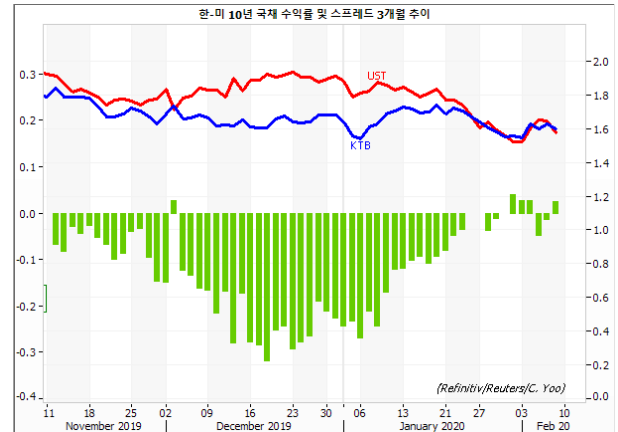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전개 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최근처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210 원이다.
-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 직격탄을 맞은 중국 경제와 이에 따른 파장을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 신종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달러/원 환율의 하방 경직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학습효과가 작동 중이어서 신종 바이러스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달러/원 환율은 1200 원 앞에서 당국 경계 등을 발미로 상승 템포를 늦출 여지도 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중요한 이벤트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11-12 일)을 들 수 있다.
- 지난 1 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 등에 반응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신종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 중국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공포감을 키워가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변수다.
- 당초 금주 중이면 바이러스 확산 흐름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4-5 월이나 돼야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 수치 변화가 시장 심리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면인 만큼 변동성에 대비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온 대내외 증시 움직임도 변수다.
-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11-12 일)이 눈 여겨 볼 이벤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에 대해 연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래프/분석)-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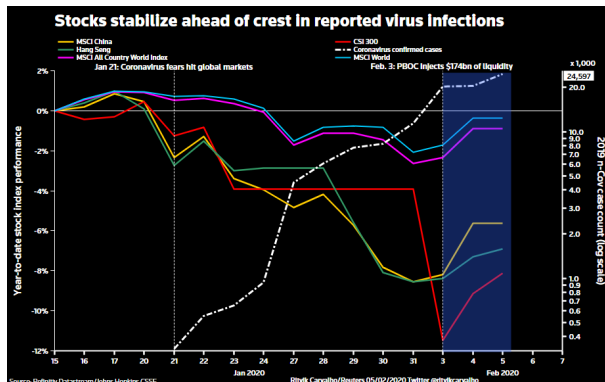
런던 (로이터) - 금융시장이 지난 1월 하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바이러스가 금융시장에 미치고 있는 여파와 경제 영향 전망, 그리고 사스 때와의 비교를 보여주는 6개의 차트다.

1) 확진자 증가세 둔화되며 증시 안정 되찾아

전세계 주식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며칠간 중앙은행들의 개입과 바이러스 확산이 언젠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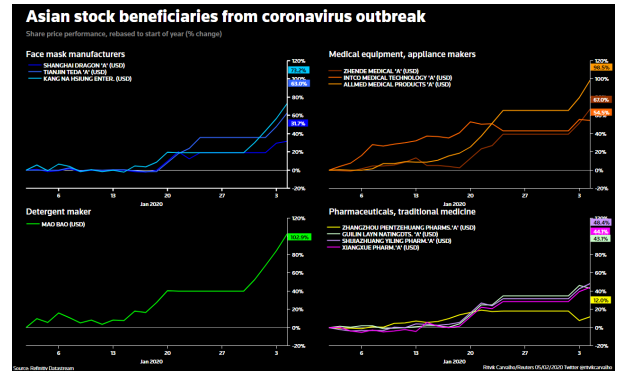
존스홉킨스대의 실시간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는 3만 834명이며, 사망자는 635명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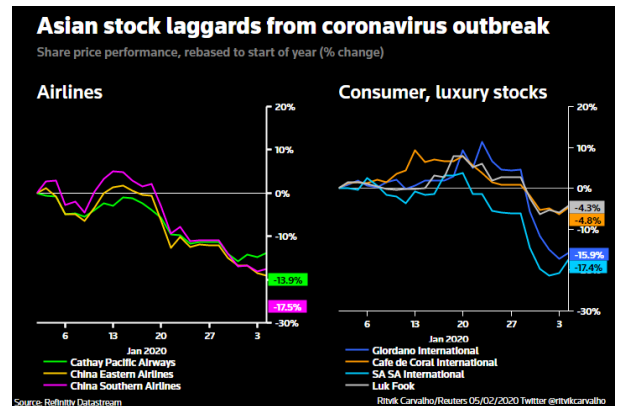
2) 승자와 패자

바이러스 발병으로 제약주, 특히 중국 제약주가 수혜를 입은 반면 관광과 호텔, 항공, 소비재, 명품 등 여행 관련 주식들이 고전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홍콩 캐세이퍼시픽은 앞으로 두 달간 중국 본토 노선 90% 등을 포함, 수용 능력을 3분의 1을 줄일 계획이며, 2만 7000여 직원들에게 3주 간의 무급 휴가를 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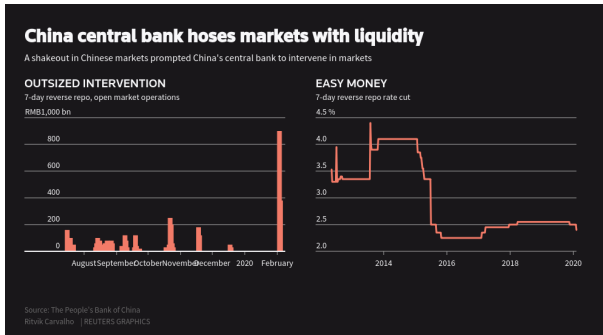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 중앙은행 부양책

중국인민은행은 이번주 초 시장에 1740억달러의 유동성을 투입했고, 역레포 금리도 인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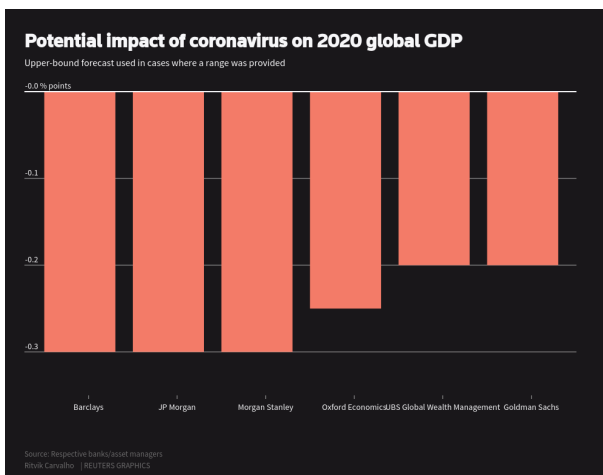
로이터는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정부가 2020년 경제 성장을 목표 하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피해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영향을 전망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글로벌 GDP 증가율이 0.2-0.3%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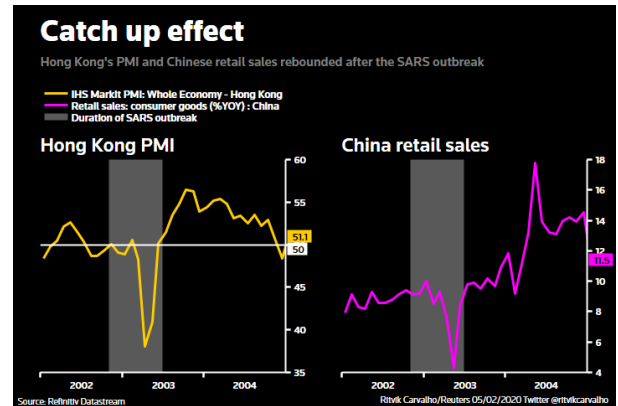
로이터 조사에서 중국 1월 수출입은 지난해 말 반짝 회복 뒤 다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달간 중국의 무역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이들은 1분기 중국의 성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2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는 낙관론자들도 있다.

단스케뱅크의 전략가들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서 "2월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고 3/4월에는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확산세가 둔화

되고 있다는 초기 조짐들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의 전망과 관련해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당시 중국의 소매판매와 홍콩 PMI를 보면 모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때에는 하락했다가 확산세가 잡힌 직후 회복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경상수지 흑자 줄었지만 내용상 주목할 변화도 나타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미-중 무역 분쟁에 직격탄을 맞으며 7년 만의 최소로 줄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추세상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포착됐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599.7억달러 흑자로 2018년(774.7억달러 흑자)보다 175억달러나 줄었다. 한은이 11월 수정 전망한 570억달러보다는 많았지만 2012년(487.9억달러 흑자)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상품수지 흑자가 2018년 1100억달러 이상에서 작년 768.6억달러로 크게 준 것이 물론 가장 큰 이유다. 한은도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대중국 수출 부진 및 반도체 등 주요품목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자료의 세부 내용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보였다.

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018년 49억달러에서 2019년 122억달러

로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나 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해외투자잔액 증가로 인한 이자 수입 증가가 주요
인이다. 작년 배당수입과 이자수입은 각각 226.8 억
달러, 182.4 억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년 4 월마다 물리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달러/원 환율은 일시적으로 변동성
을 높이지만 물밑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 소
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물론 배당수지에 있어서 아직 일관된 흐름을 예측
할 수는 없다.

지난 6-8 월중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기업이 그간의 해외법인 누
적 잉여금을 우호적인 환율 여건을 감안해 배당으
로 수취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작년 12 월 배당소득수지는 전월보다 15 억달러
늘어난 20 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상품수지 급감 영향을 서
비스 및 본원소득수지가 완충 역할을 한 측면이 크
다"면서 "경상수지가 전체 규모 면에서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여행과 운송수지 개선에
힘입어 2018 년 293.7 억달러 적자에서 230.2 억달
러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로 본원소득수지
확대 추세가 형성되며 경상수지 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의 한은 관계자는 "본원소득수지는 환율 영향도
있지만 최근 몇년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많이 늘
어난 결과"라면서 "구조적인 흐름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9 월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사상 처
음으로 5 천억달러를 넘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본원소득수지가 추세를 형
성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 추세에 대한 발
판은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점)-금리인하 베팅 들어간 외국인..2 월 금통위 결과 따라 뒤집을 가능성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순매수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사실
상의 '기준금리 인하 베팅'이라는 분석이 지지를 얻
고 있다.

국내 기관 운용역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2 월 금융통
화위원회 회의 이후 외국인의 행보다. 금통위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기준금리를 또 동결할
경우 외국인이 롱 포지션을 꺾을 것이냐가 최대 관
건으로 떠올랐다.

▲외인,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경제 영향 보며 금리
인하 베팅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8 일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했다.

그날 3 년 국채선물을 1 만 2202 계약, 10 년 선물을
4140 계약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달 5 일까지 7 거래
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6 일 장중에는 10 년 선물을 매도하고 있지만, 여전
히 3 년 선물을 7000 계약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달 27 일 기준으로 16 만계약, 1 만 4000 계약
수준에 그쳤던 외국인의 3 년, 10 년 선물 누적 순매
수 규모는 지난 5 일 증가 기준으로 각각 22 만계약,
4 만 5000 계약 수준까지 늘어났다.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한 우려, 안도, 더 큰 우려가
반복되며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는데도 외국인은 원
화 국채선물 시장에서 한 방향 매수를 이어가고 있
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도 외국인은 3 년 국채 선물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감안한 전략
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을 경우 GDP 대비 중국 수출 비중이 큰 말레이시

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중국 관광객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태국이 5일 전격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채 베팅에 힘을 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우리는 원화채 시장만 보지만 헤지펀드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 전체에 베팅할 수 있다"며 "한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해도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의 인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일 수 있다"고 말했다.

▲ "2월 금통위 동결시 외인 셀 오프" VS "포지션 계속 유지 가능성"

시장참가자들의 고민은 2월 금통위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포지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느냐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통위가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외국인이 롱 포지션을 접으며 금리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인이 좀 더 긴 시계에서 포지션을 끌고 간다면 국내기관 운용역들의 포지션도 꼬일 수 있다. 지난해 채권 강세장이 이어질 때 외국인의 3년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가 34만계약, 10년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가 11만계약 수준이었다.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 쌓는다면 국내 기관의 숏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 외은지점의 트레이딩헤드는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도 그렇게 보고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나 청와대 분위기가 '뭐든 해보자'는 쪽이고 한은 역시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외국인의 셀 오프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이 국채선물 매수를 늘리면서 국내 기관들은 모두 숏으로 끌려

가는 분위기기 때문에 금통위 결과와 함께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 외은지점의 한 트레이딩헤드는 "외국인이 이달 금통위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자율 스왑(IRS) 커브를 보면 당장 이달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정도가 급격히 올라가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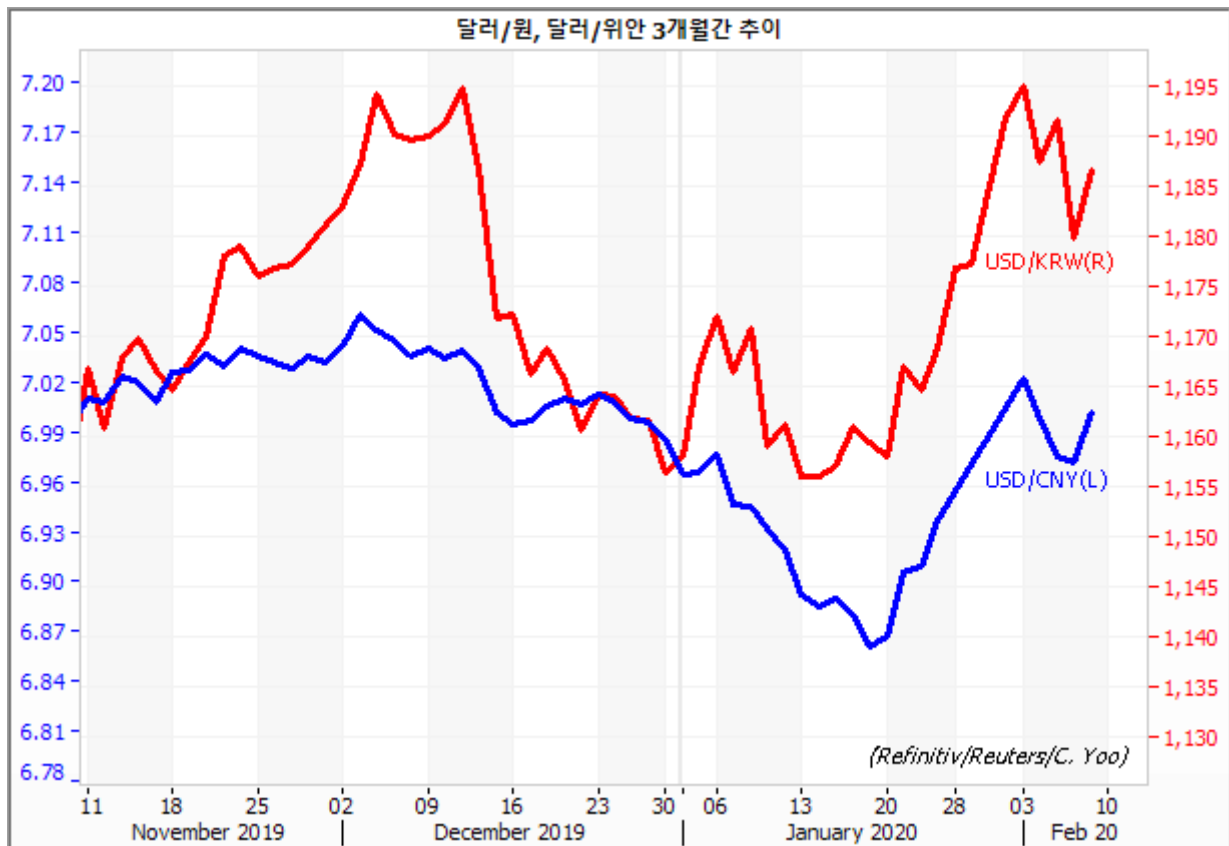
그는 "2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커브 스티프너로 가는 게 맞는 듯하다"고 말했다.

D 시중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올해 국고채 발행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틈을 외국인이 노렸다"며 "그동안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밀어붙일 때 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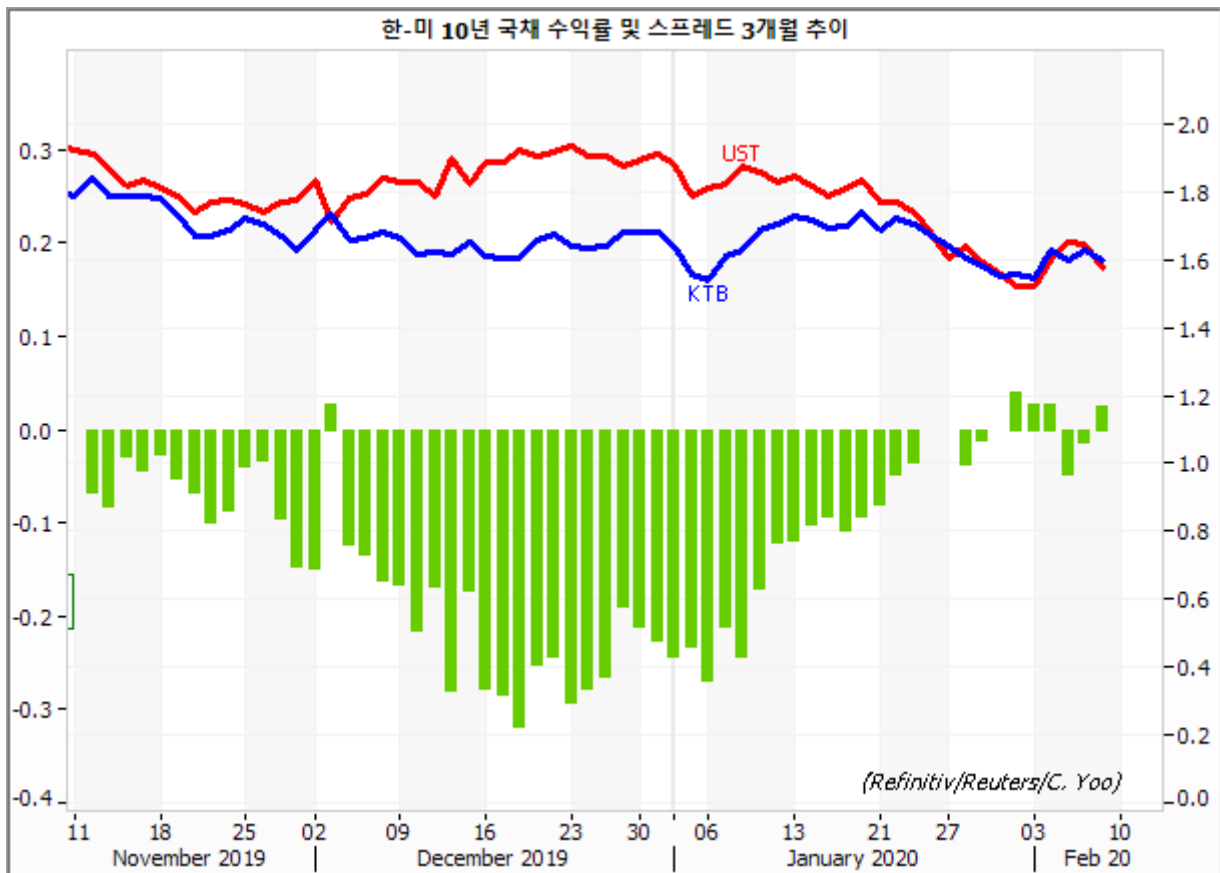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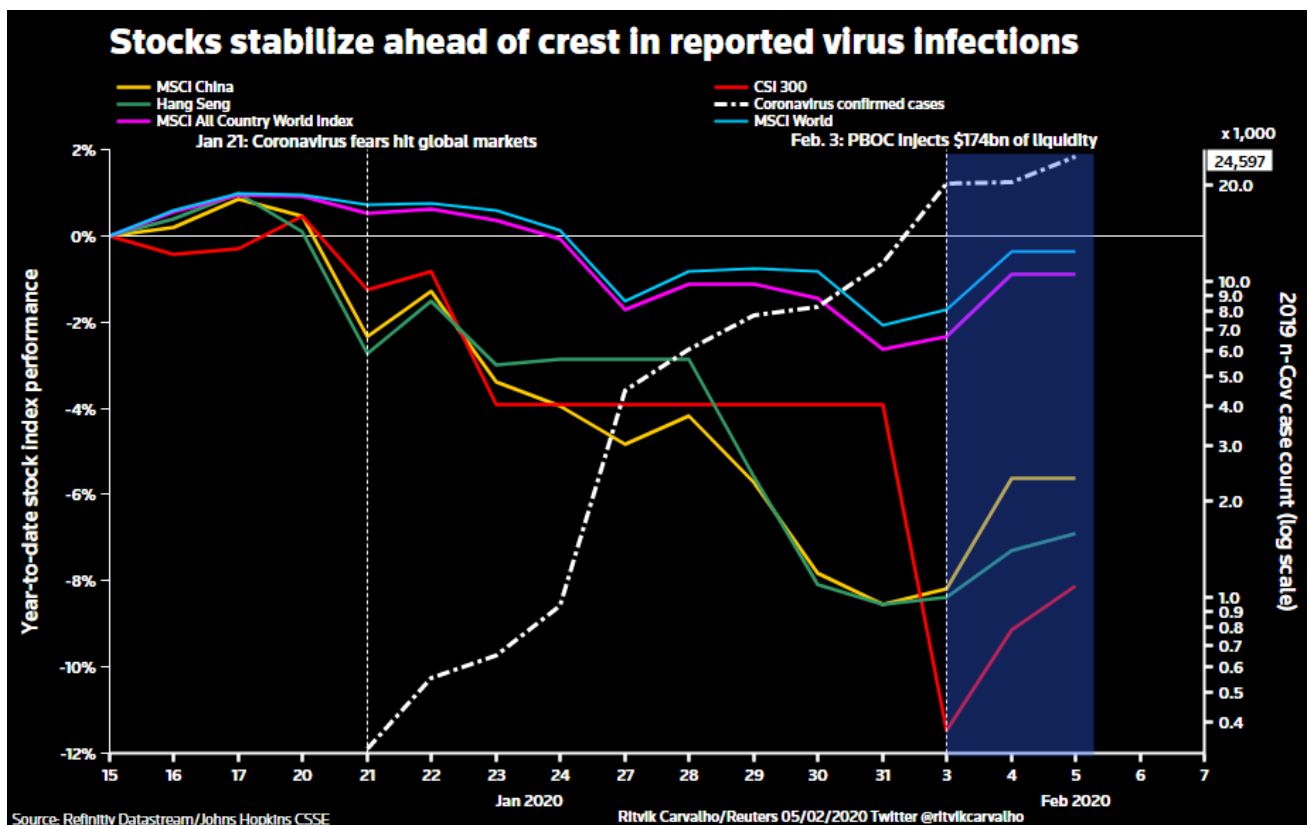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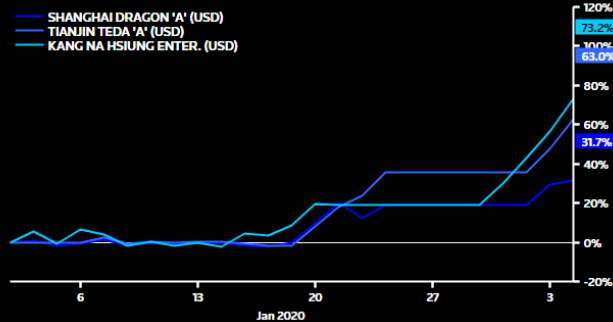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sian stock beneficiaries from coronavirus outbreak

Share price performance, rebased to start of year (%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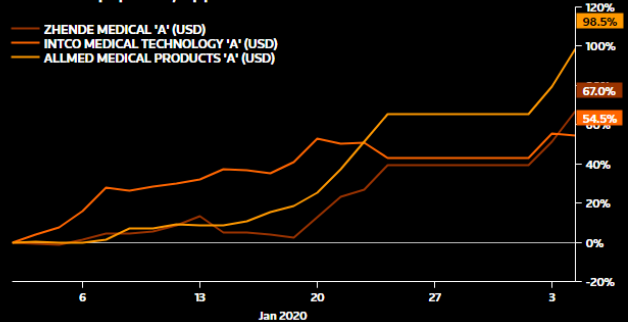
Face mask manufacturers

SHANGHAI DRAGON 'A' (USD)
TIANJIN TEDA 'A' (USD)
KANG NA HSIUNG ENTER.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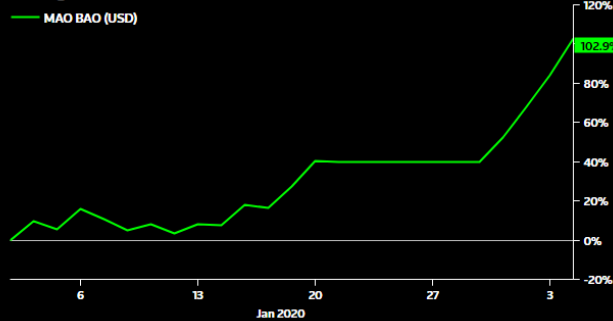
Medical equipment, appliance makers

ZHENDE MEDICAL 'A' (USD)
INTCO MEDICAL TECHNOLOGY 'A' (USD)
ALLMED MEDICAL PRODUCTS 'A'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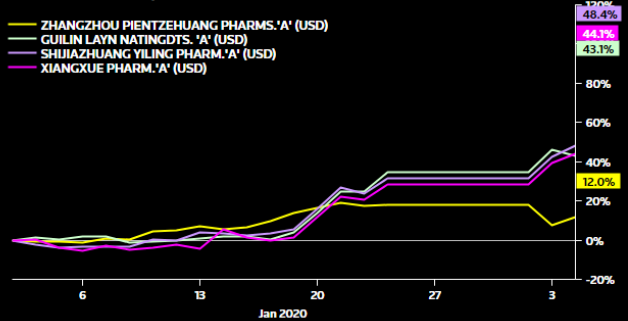
Detergent maker

MAO BAO (USD)



Pharmaceuticals, traditional medicine

ZHANGZHOU PIEN TZE HUANG PHARMS. 'A' (USD)
GUILIN LAYN NATINGOTS. 'A' (USD)
SHUIAZHUANG YILING PHARM. 'A' (USD)
XIANGXUE PHARM. 'A' (USD)



Source: Refinitiv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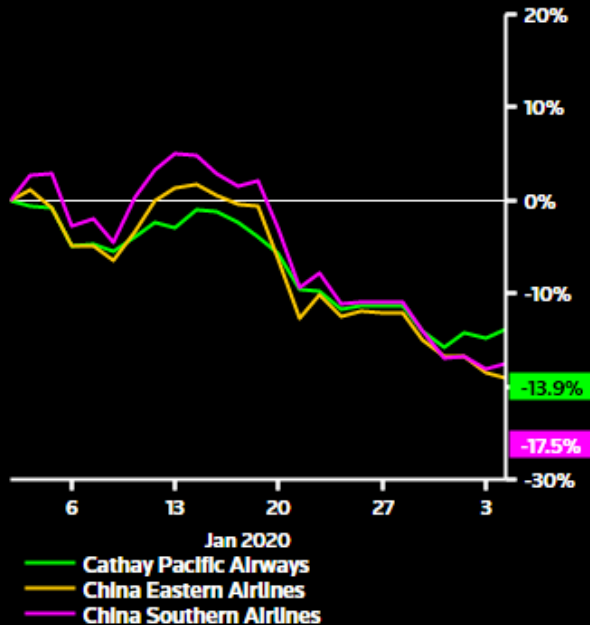
Ritvik Carvalho/Reuters 05/02/2020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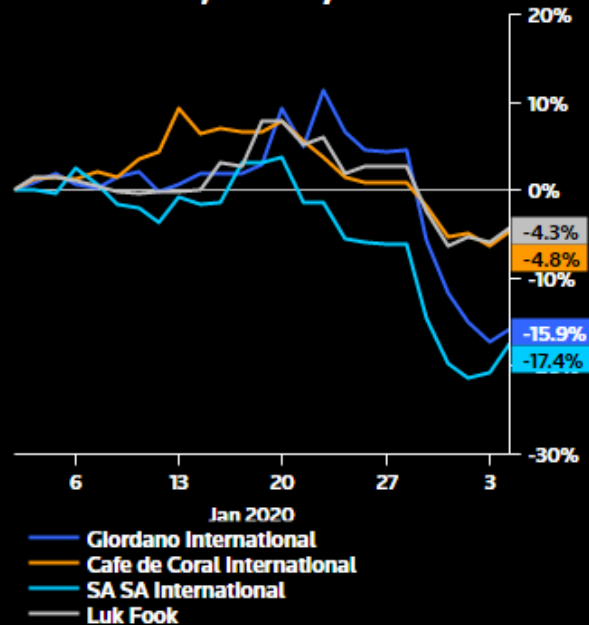
Asian stock laggards from coronavirus outbreak

Share price performance, rebased to start of year (% change)

Airlines



Consumer, luxury stock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itvik Carvalho/Reuters 05/02/2020 Twitter @ritvikcarvalho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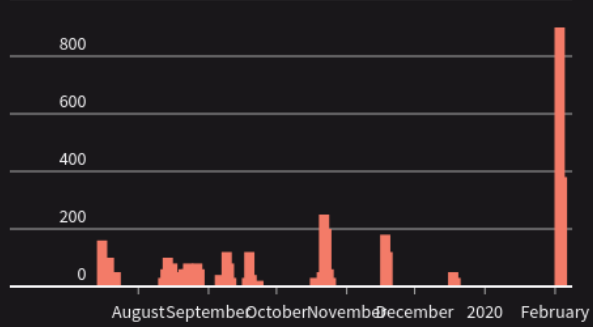
China central bank hoses markets with liquidity

A shakeout in Chinese markets prompted China's central bank to intervene in markets

OUTSIZED INTERVENTION

7-day reverse repo, open market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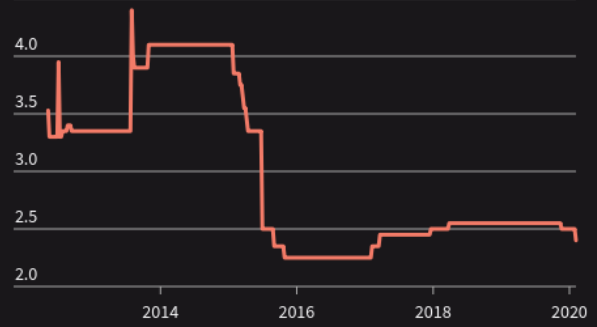
RMB1,000 bn



EASY MONEY

7-day reverse repo rate cut

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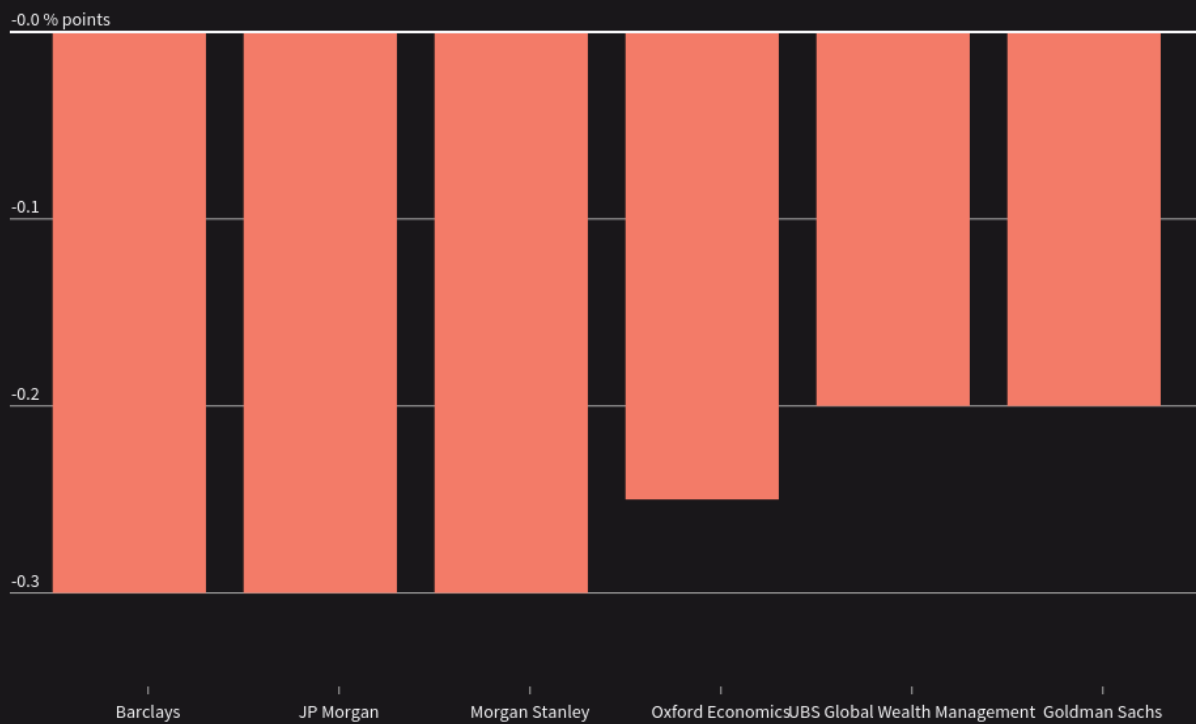


Source: The People's Bank of China
Ritvik Carvalho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Potential impact of coronavirus on 2020 global GDP

Upper-bound forecast used in cases where a range was provided



Source: Respective banks/asset managers
Ritvik Carvalho | REUTERS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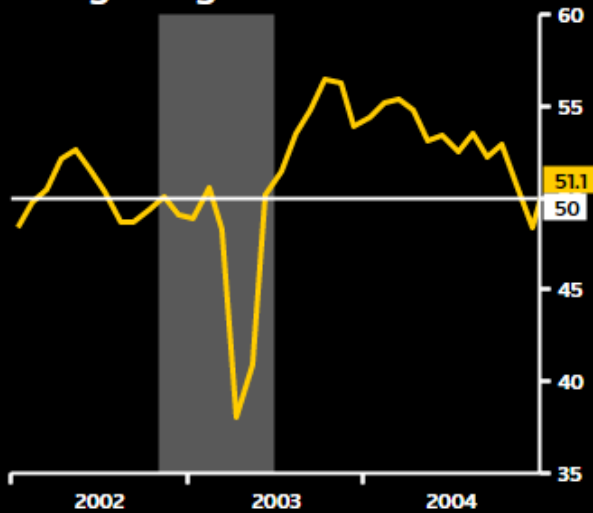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atch up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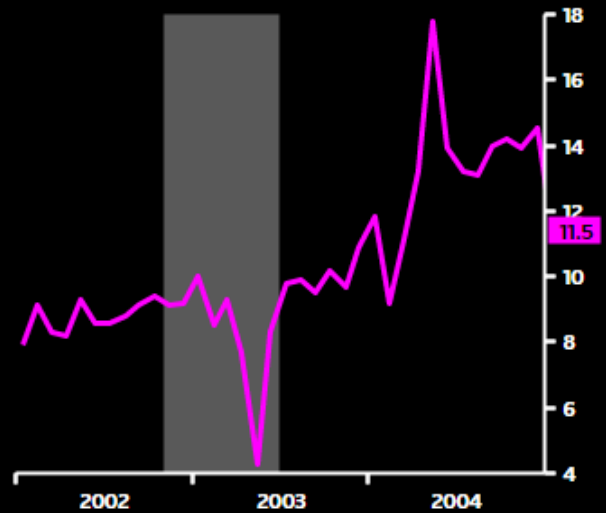
Hong Kong's PMI and Chinese retail sales rebounded after the SARS outbreak

- IHS Markit PMI: Whole Economy - Hong Kong
- Retail sales: consumer goods (%YOY) : China
- Duration of SARS outbreak

Hong Kong PMI



China retail sale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